외교임국

제34호

발행일 2020년 2월 4일
발행처 국회입법조사처
발행인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
www.nars.go.kr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

Parliamentary Diplomacy: Trends and Analysis

Ⅰ. 국회의장, 주한 덴마크 대사 예방 받아

문희상 국회의장은 2020년 1월 23일 아이너 헤보고르 옌센(Einar Hebogard Jensen) 주한덴마크대사의 예방을 받았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김대중 대통령의 '기적은 기적처럼 오지 않는다'는 말을 인용하며 "현재 한반도 프로세스가 교착상태에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염원하고, 실행계획을 짜고 교류를 하는 노력이 있었다. 우리는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 갑자기 되기는 어렵지만, 여러 작업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의장은 "한반도 평화정착, 비핵화 과정을 (덴마크가) 한결같이 지지해주고, 국제사회를 통해 중요한 역할을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의장은 또 "한국전쟁이 벌어지고 70년이 지났다. 어려울 때 많이 도와주신 분들을 잊지 않고 있다"면서 "병원선 파견 등 (한국전쟁 때) 덴마크가 해준 많은 지원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옌센 대사는 "덴마크는 한반도 평화정착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지난 몇 년간 남북관계에 있어 대단한 성취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 성취를 (대단한 성취라고) 깨닫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문 의장과 옌센 대사는 2월에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2차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Global Goals)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양국 간 신재생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방안 등을 논의했다.

II. 2020년 러시아의 대외정책 전망과 우리의 대응과제

1. 들어가며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러시아 대통령의 집권 4기는 경제·정치 등 대내정책 안정과 적극적인 대외정책 실행에 집중하고 있다.

대외정책의 경우, 미국과는 갈등을 겪고 있지만, 중국과는 전례 없이 긴밀한 협조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 유럽과 CIS[1] 국가 등 인근 국가 외에, 남북한 등 동북 아시아와 시리아, 터키, 이란, 리비아, 사우디 아라비아, 아랍 에미리트 등 지중해,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까지 대외 활동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도 안정세를 유지해왔다. 그러나 경제 침체와 2018년 연금 개혁에 대한 반발[2]로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하락하는 등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리기도 했다. 2020년 1월, 푸틴 대통령은 내각 재구성과 개헌 제안을 통해 지지율 회복을 모색하는 중이다.

러시아는 남북관계에서 중재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글에서는 2020년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전망하고, 이에 대한 한·러 관계 현황 및 우리나라의 대응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2020년 러시아의 대외정책 전망

1) 2020년 의회 국정연설의 주요 내용

푸틴 대통령은 2020년 1월 15일, 국정연설을 통해 2020년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했다.[3] 대외정책과 관련해 러시아의 외교안보 능력에 대한 자신감과 팽창주의 지속 의지를 언급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러시아의 중동과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참여는 지역 정세 안정을 위한 것이며, 이를 위해 미국, 중국, 프랑스, 영국 등 5대 핵보유국의 책임과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둘째, 러시아는 어느 국가와도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어느 누구도 위협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의 국방력이 차세대 전투 시스템 확보 등으로 향후 수십 년 간 더욱 발전할 것이라 말하는 등, 국방력 유지·강화에 대한 의지에 대해 언급했다.

2020년 국정연설에는 전년도와 같이 사회·경제적 측면에 많은 부분이 할애되었는데, 2018년 국정연설에서 안보와 국방을 강조했던 것과 비교하면 최근 러시아 정부가 대내정책에도 관심을 두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대외정책이 푸틴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약화로 동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서방의 제재와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제 침체, 2018년 연금 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반발, 2019년 대규모 시위, 푸틴 대통령의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 등으로 인해 여론이 악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있다. 일례로 2019년 9월 지방선거에서 모스크바 시의회 등에서 여당이 의석을 일부 상실하기도 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의회 및 총리 권한 강화를 골자로 한 개헌을 제안하고, 부패 스캔

1) 독립국가연합(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 CIS)는 소련의 해체로 독립한 10개 국가의 경제·정치 연합체다.

2) 2018년, 러시아 연금개혁의 골자는 현재 55세로 되어 있는 연금 개시 연령을 여성은 63세, 남성은 65세까지로 늦추는 것이다.

3) 러시아 정부 홈페이지(최종 검색일: 2020.12.28.)〈http://en.kremlin.ru/events/president/news/62582〉.

들을 야기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총리를 경질하는 등 내각을 재구성해 정치적 안정을 회복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러시아의 대외관계 전망

러시아의 미국, 중국, 일본, 북한 등과의 관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망해 볼 수 있다.

첫째, 미·러 간 관계는 당분간 우호적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양자 관계는 "냉전 종식 이후 최악"이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악화일로 상태다.[4]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의혹, 크림반도 병합 이후 서방의 대(對)러시아 제재, NATO와의 갈등, 시리아 및 리비아 내전 개입 등 여러 면에서 양국 간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2020년에는 양국 간 갈등이 중동이나 아프리카 지역에서 더 심해질 확률도 있다. 푸틴 대통령이 양자 대화의 필요성을 강조해왔기 때문에 극적인 정상회담 개최 등으로 개선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으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원의 탄핵 심사를 받고 있어 당분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중국과의 협력관계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 내에서 한때 과도한 중국의 경제 의존에 대해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으나, 전반적으로 중·러 간 경제·정치적 협력은 강화되는 추세다. 러시아는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자이며, 양국 무역액은 계속 증가해 2019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2019년, 러시아는 중국과 '새시대 전면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에 합의했으며, 산둥성 지역에서 해상 연합훈련을, 인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에서도 대규모 군사 훈련을 실시하는 등 군사적 협력 관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셋째, 러시아와 일본 간 관계는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쿠릴열도 반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경협을 추진했으나, 미국의 미사일이 일본에 배치될 경우 러·일 간 관계가 경색될 가능성도 있다. 2018년 9월, 푸틴 대통령이 일본에 평화조약 체결을 제안해 한때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2019년 9월 푸틴 대통령이 미·일 간 군사동맹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 바 있다.

넷째, 러시아와 북한 간 협력 관계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9년 4월, 북·러 간 정상회담이 8년 만에 개최되어 두만강 자동차 교량 사업 등 제재 제외 분야에 관한 경협을 논의하는 등, 양국의 공조 체제가 공고해지고 있다. 2019년, 러시아는 북핵 문제에 관해 '북핵 로드맵 3단계 해법'을 제안하고, 6자 회담과 대북제재 완화 등을 제시하는 등 중재자 역할을 자처했다. 지난 12월, 대북 경제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중국과 함께 UN에 제출한 것으로 보아, 북·러 간 협력이 더 밀접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 외 주요 대외정책으로 러시아는 유럽 국가와의 긴밀한 협력을 시도할 것으로 보이며, 일부 CIS 국가들이 참여한 유라시아경제연합 등 지역공동체의 실질적인 발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3. 한·러 관계 현황 및 대응과제

한·러 관계는 1990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했다. 경제적으로는 양국 무역액이 2001년 287만 달러에서 2018년 2,482만 달러로 약 10배 정도 증가했으며, 2019년에는 최고점에 달

4) Eugene Rumer and Richard Sokolsky, "Thirty Years of U.S. Policy Toward Russia: Can the Vicious Circle Be Broken?", Carnei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June 20 2019.

했다. 그러나 수입액이 수출액보다 더 큰 폭으로 증가해, 한국의 대 러시아 무역적자가 2001년 99만 달러에서 2018년 1,018달러로 악화되었다.[5)]

아울러 우리나라의 신북방정책과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따라 2019-2022년까지 우리나라의 러시아 극동지역 내 건설 수주액이 150억 달러를 넘었으며, 7건의 민관합동 투자개발사업 추진되는 등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의 복잡한 행정 및 법적 규제, 인프라 부족 등이 극동지역 진출의 난관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북·러 관계에 관해 2019년 4월, 러시아 정부는 '북한 문제는 러시아 역내 현안'이라고 천명했다. 북·러 관계는 2000년대 후반부터 나진-하산 철도사업 등 북·러 경제협력이 본격화되고, 이후 북핵문제가 야기되면서 더욱 밀접해졌다. 2019년 3월, 러시아와 북한은 북·러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해 북·러 교역 확대, 교통·운송 분야 협력,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체류 문제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협의했다. 2019년 4월, 북·러 간 정상회담이 8년 만에 개최된 데 이어,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6자 회담'을 제안하고 12월에는 UN에 대북 제재 완화를 요청하는 등, 러시아는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북핵 참여 의지를 거듭 밝혀왔다.

또 러시아의 중동 및 북부 아프리카, 지중해 지역에 대한 지정학적 영향력도 강화될 수 있다. 러시아는 시리아 평화회담과 터키의 쿠르트 족 정책 등에서 중재자로 활약해왔는데, 지역 내 정세 불안이 지속되고 있어 러시아의 개입이 축소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와 같은 우리나라와 러시아 간 관계를 고려해, 다음과 같은 대응과제를 논의해 볼 수 있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의 러시아 극동지역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러시아 정부와 다각도에서 협력을 도모할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러시아에 극동 진출 시 행정 절차나 법 규제 등을 간소화하고, 기업 활동과 관련된 면세 혹은 세금 인하 등의 혜택 확대를 요청할 수 있다.

둘째, 한·러 간 무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2019년 6월에 시작된 한·러 서비스·투자 FTA 협상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하고, 우리나라 대러시아 무역적자를 보완할 수 있도록 협상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이에 대해 러시아를 설득할 필요가 있다.

셋째, 러시아가 북핵문제 해결 및 남북관계 개선에 관해 중재자 역할 담당을 기대할 수 있다. 북한이 북·미 협상 부진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것이라는 시각이 있는 만큼, 러시아를 통한 남북한 관계 개선을 시도해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북 제재 예외 분야의 경제협력과 관련해 러시아에 촉매 역할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넷째, 위 3가지 방안에 대해 2020년, 한·러 수교 30주년이라는 모멘텀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선포하고,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를 위해 2020-2021년을 '상호 문화교류의 해'로 지정했다. 한·러 간 관계를 경제 및 정치뿐 아니라, 공공외교에도 관심을 두는 등 다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심성은 입법조사관

5) KOSIS(최종 검색일: 2020.1.29.)〈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360&tblId=DT_1R11006_FRM101〉.

「의회외교 동향과 분석」은 국회의원의 의회외교 활동 동향 및 비전에 대해 주간으로 발간하는 정보 소식지입니다.

07233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국회입법조사처
Tel. 02-788-4510
발간등록번호 31-9735008-001708-14
ISSN 2671-809X
국회입법조사처